



IDI SOLOMON ISLANDS

감사로 시작한 한해...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의 파송 교회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함께,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실 장로님 모습이 떠오르며 감격이 교차되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다” 라는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마지막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순종하신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살아 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2가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 나눕니다. 그 동안 학교에 너무나 다니고 싶었던 둘째 예담이가 올 1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간 보내지 못했던 저희 마음이 짝해 집니다. 또 한가지는 귀한 동역의 손길을 통해 2008년부터 기도해 왔던 4륜 구동 자동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의 손길로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전도 부족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초에는 미전도 부족 탐사와 병행하여 교회가 필요한 투라라나 지역 인근의 3개 지역에 대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섬의 동쪽 끝에 있는 마라우 라는 지역 탐사를 다른 사역팀과 4월 중 방문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전도 부족이 있을 것으로 특히 예상되는 지



후원해 주신 자동차 앞에서

역이어서 귀한 만남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집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예담이의 학교 입학으로 현지 쓰레기장과 외부 정착민들을 위해 세워진 유치원에서 발렌티어 교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1달러(140원)를 받는 유치원으로 극빈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유치원으로 사랑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도 제목

- ★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 ★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 ★ 수상 선거로 붙어졌던 폭동 소요가 많이 잠잠해 졌으나 여전히 갈등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 되도록.
- ★ 정글 지역에 대한 지리에 밝고 한마음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 ★ 투라라나 지역과 마라우 지역 탐사를 위한 준비가 잘 되고 방문 가운데 정확한 정보들이 수집되도록.
- ★ 홍수로 붕괴된 우물사업 대상 지역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 ★ 5월초 말랑고 지역 선교대회에서 ‘세계선교현황과 복음’이란 주제로 계획된 강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 ★ 아내의 유치원 사역 가운데 지혜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도록

솔로몬 정보 12 “1달러 유치원”



솔로몬 군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에 세워진 1달러(140원) 유치원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강통들을 수집하여 그것을 팔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유치원입니다. 매일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날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배움의 열의는 한국 못지 않습니다.

연락처

주소: P.O Box 86 ,
Honiara,
Solomon Islands

휴대폰: 677 - 7456108

이메일:

cjh5690@naver.com
cjh5690@gmail.com

*일반전화 고장이 잦고 몇 개월씩 수리가 지연되어 일반전화를 정지하였습니다.